

# “보호종서식지에 골프장...공사중단을”

### 함평 대동면 1600만㎡규모의 골프장 공사 중 멸종위기 2급인 ‘담비’ ‘긴꼬리투구새우’ 발견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골프장이 들어설 부지에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가 서식하고 있는 장면이다.

환경단체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건립 부지에 멸종 보호종(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생태 환경재조사를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함평군이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동면 부지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골프장 건립 허가 구역은 호남정맥·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곳”이라며 “환경 생태 축으로도, 동식물 서식지로도 보전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완료했지만, 평가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주민 제보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카메라 관찰 등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멸종위기 2급인 ‘담비’와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됐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의 번식기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밀 조사를 할 경우 여름철새 법정 보호종도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 생태 환경 재조사가 시급하다.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 영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22일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함평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함평=김광훈기자

### 광주 동부소방, 유치원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21일 오전 사랑숲유치원을 찾아 교사와 원생을 대상으로 소소심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미취학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체험 ▲화재 시 대피방법 ▲올바른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 체험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김석순 119재난대응단장은 “체험 위주의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참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더욱 유익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담양경찰,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사기 피의자 검거

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면 편취한 피의자 A씨(19세, 여)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7일 13:00경 담양읍 소재 포 편의점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천88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8천8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균경찰서장은 “저금리 고액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APP) 설치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라며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함평경찰, ‘도로침하 보수공사’ 현장 특별점검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지난 21일, 관내 지방도상에서 진행중인 도로 침하 보수공사 현장을 사고예방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우려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인 광주·전남지방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 의뢰, 합동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함평을 돌머리해수욕장 해안도로에 위치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경부터 도로 침하현상이 진행되어 구간에 대한 쏠라이트 경광등등 교통안전용품 설치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제고, 사고예방 임시조치로 진행되어 오다 금년 4월경부터 보수공사를 하고있는 구간으로서 재발 방지 등 사고예방 차원에서 점검중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의뢰한 계기가 되었다.

함평=김광훈기자

### 완도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성수기를 맞아 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저해 사범 지도·단속의 일환으로 10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와 사업장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생한 관내 수상레저사고는 총 40건으로 이중 22건(55%)이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 기간(5월~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성수기에 집중되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도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금지구역 집중 관리 ▲기상 불량 시 출항통제 ▲수상레저 안전 위해 사범 집중단속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안전한 레저기반 조성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병행한 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제작·홍보중인 수상레저 활동신고 영상과 더불어 접근이 용이하고 다수 기능이 집약된 ‘수상레저 안전가이드’APP 개발을 통해 비대면 안전 콘텐츠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 실시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대한 힘쓰겠다”며 “수상레저 활동 시 레저기구 점검과 관련 법률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 여수 오동도 앞 해상서 1900t급 선박 연료유 소량 유출

### 외국적 화물선 급유 중 벨브조작 미숙...저유황중질유 흘러 해경 함정·방제정 등 4척,수거 및 소화포로 자연 소멸 작업

전남 여수시 오동도 앞 해상에서 23일 선박 급유작업 중 연료유가 유출돼 긴급 방제작업이 펼쳐졌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55분경 오동도 동쪽 2.7km 해상 W 정박지에서 1900t급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A 호(승선원 12명)와 190t급 급유선 B 호(승선원 4명)가 해상 급유작업을 하던 중 저유황 중질유 일부가 해상으로 흘렀다.

여수해경은 신고를 받고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출동 시켜 사고 현장 주변에서 길이 30m, 폭 50m의 갈색 유막을 발견하고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경은 방제정 및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유흡착재등을 이용해 기름 수거하거나 함정의 소화포 등을 가동해 자연 소멸작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화물선 A 호가 190t급 급유



선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벨브 조작 미숙으로 연료유가 넘치며 기름 유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선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과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 동전 7만원 어치 훔친 30대, 2심도 징역 2년 6개월

### 절도죄로 6차례의 실형 살기도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한 점 고려

상가에 침입해 동전 7만 원을 훔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절도죄로 6차례의 실형을 살기도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광주고법 제2-2 형사부(재판장

위광하 고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죄책 등을 두루 고려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9월 16일 사이 광주·전남·경남 지역 가계 6곳에 침입해 2차례에 걸쳐 금고·저금통에 든 동전 7만 원을 훔치고, 4차례는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거나 뜯고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수법·횡수 등에 비해 A씨의 죄책이 무겁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형기를 마친 뒤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